

최종보고서

『지역 여성들과 함께하는 재난 대응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선 **여자들**

주혜진 · 김성곤



연구책임	• 주혜진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곤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 권순지 / 무소속 • 공혜영 /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 엄숙희 / 대전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 국장 • 윤민영 / 대전여성단체연합 청년활동가 • 임다운 / 머물다가게 대표

센터연구 2020-01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선 여자들

발행인 정 재 근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48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례

1장 프로젝트 개요	3
1. 프로젝트 목적	3
2. 프로젝트 과정	3
3. 공모전 응모 결과 요약	4
2장 워킹그룹 참여자 활동보고서	8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형 돌봄교사 지원 정책_권순지	8
2. 대전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발코니 콘서트 기획_공혜영	14
3. 코로나 19 대응 “여성 생(生)활 기(技)술 아카데미_엄숙희	25
4. 여력여(女力女)_윤민영	34
5. 걸스(Girls) 온택트(Ontact) 상담소_임다운	40

표 차례

[표 1-1] 영역별 분류 기준 및 결과	4
[표 1-2] 제안된 아이디어 요약	5
[표 2-1] 전국 초등학교 긴급 돌봄 참여 현황	9
[표 2-2]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 현황	14
[표 2-3] 지원 대상 구성 가이드라인	20
[표 2-4] 공연예술 운영 가이드 라인	21
[표 2-5] 공학계 재학생 비율	26
[표 2-6] 전공계열별 경제활동참가율	26
[표 2-7] 기혼 경력단절 여성인구·경력단절 여성 비율	27
[표 2-8] 전공계열별 경력단절여성	27
[표 2-9] 강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자 현황	28
[표 2-10] 2018년 성별 성폭력 피해자 연령 비율	28
[표 2-11]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1+2+3순위>	29
[표 2-12] 지역사회 특성 중 1인 가구가 중요시하는 항목	30
[표 2-13] 1단계 교육과정	31
[표 2-14] 2단계 교육과정	32

그림 차례

[그림 2-1]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응답 결과	11
[그림 2-2] 예술 경력 단절 경험	15
[그림 2-3] 예술경력 단절 이유	15
[그림 2-4] 예술인 연령별·성별 분포도	16
[그림 2-5] 예술기획 및 운영 범위 확장	21
[그림 2-6] 1인 생활의 생활상 어려움 및 해결 방법	35
[그림 2-7] 여력여(女力女) 플랫폼 구상안	38

1장 프로젝트 개요

1. 프로젝트 목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위기로 여성들에게 가중되는 다양한 어려움의 실태 파악
-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코로나 19 대응 방안' 공모를 실시하여 체감형 아이디어 발굴
-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코로나 19 이후의 삶의 변화를 토의하고, 재난에 취약한 여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2. 프로젝트 과정

1)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가. 공모 내용

- 일자리 부족, 실직, 과중한 돌봄노동 등 코로나 19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근거로 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 제시
- 재난 상황에 처한 여성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제 제안

나. 진행 과정

-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대전시 홈페이지, 연구원 내 메일링 리스트, 젠더공감 청년활동가 등을 통해 배포 / 6.3.(수)~ 6.14(일)까지 12일간 진행
- 기한 내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전시, 여성센터, 워킹그룹 참여자가 심사
-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 10건에 대해 '훌륭해요' 시상
- 성의 있는 내용이 담긴 공모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건에 대해 '감사해요' 시상
- 공모전 기한 내 총 45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됨

2)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한 정책 과제 발굴

가. 참여자 구성

- 일과 돌봄의 영역을 중심으로 여성 5인 내외로 구성
 - 비정규직, 프리랜서, 구직·실직자, 자영업 등 각 분야의 여성
 - 영유아 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가족 돌봄 영역의 여성
- 참여자
 - 권순지 (무소속 / 영·유아돌봄 영역)

- 공혜영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 가족 돌봄 영역)
- 엄숙희 (대전 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 / 일 영역)
- 윤민영 (대전여성단체연합 / 청년, 비정규직 영역)
- 임다운 (머물다가게 / 청년, 자영업 영역)

나. 워킹그룹 활동

- 총 3회에 걸쳐 워킹그룹 참여자 간 토론회 개최
- 1회차 : 7월 10일(금) / 오리엔테이션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 논의
- 2회차 : 7월 28일(화) / 공모전 아이디어에 기반한 정책과제 발굴
- 3회차 : 8월 25일(화) / 발굴한 정책과제의 실현 가능성 검토 및 활동 보고서 내용 논의
-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참여자별 활동보고서를 취합 후 정리

3. 공모전 응모 결과 요약

1) 총 응모 건수 : 45건

2) 영역별 분류 결과 (중복 분류 포함)

- [표 1-1]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제안된 아이디어를 분류함
- ‘생활 영역’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가지 영역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안한 의견(중복 분류)은 ‘돌봄·생활’ 영역이 4건, ‘생활·보건’ 영역이 3건, ‘일·돌봄’ 영역이 2건, ‘일·생활’ 영역이 1건으로 나타났음

[표 1-1] 영역별 분류 기준 및 결과

영역	분류 기준 (키워드)	건수
일	일자리, 경제적 지원 방안 등	11건
돌봄	영유아·초등학생·노인 돌봄 등	9건
생활	심리치료, 정서안정, 문화, 급식, 반찬, 공동부엌, 식재료 플랫폼, 주거안전 등	27건
보건	방역 인식개선 방안, 마스크, 자가격리 관련 내용 등	7건
미분류	판단불가	1건
합 계 (중복 분류 포함)		55건

3) 제안된 아이디어 요약

- 일련번호 :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한 순서
- 키워드 : 제안된 아이디어 속 핵심 키워드를 최대 3개까지 추출하였음. 내용이 짧은 경우 1개~2개의 키워드만 추출함
- 내용 요약 : 많은 내용이 있는 아이디어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최대한 압축하였음. 요약이 없는 케이스는 내용이 짧거나 공모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임
- ‘훌륭해요’로 선정된 10건의 아이디어는 배경색으로 구분하였음

[표 1-2] 제안된 아이디어 요약

일련번호	영역			키워드	내용 요약
	일	돌봄	생활 보진		
008	○	○		취약, 여성, 노동자	오마이뉴스 5.18. '코로나19위기, 지금 왜 '여성노동자인가'; 고용노동부 4.2 보도자료 내용 인용 / 개인 의견도 추가되어 있음
009	○	○		자녀돌봄, 교사 실업, 플랫폼 구축	휴직, 실직한 교사를 활용한 영유아 돌봄 플랫폼 구축
007	○		○	가족갈등, 고용, 데이터 축적	가족갈등 해소방안 홍보 및 지원, 성별과 직업에 따른 고용 데이터 축적과 활용
010	○			여성 자영업자, 한부모가정, 여성청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3가지
018	○			모바일 앱, 웹 개발, 교육	온라인으로 수익 창출 할 수 있는 방법 교육
021	○			여성, 1인, 근로자, 세금 감면	여성 1인 사업장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세금 감면 혜택 / 홍보
005	○			여성단체, 기업, 기금	단체별 역할 구분
023	○			여성일자리, 치우개선, 보육·돌봄교사	여성의 돌봄노동을 여성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구조 지적 / 돌봄분야의 인력 증가 (치우개선)
025	○			경력단절, 킥트론타워	
029	○			경력단절여성, 이공계, 원격수업	원격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 준비와 같은 업무를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에게 배정
030	○			경력단절여성, 나눔, 맞춤형보안내서	경력단절여성의 활용 방안 3가지
001		○	○	간식, 식사비용, 공동부역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 해소 방안

일련번호	영역			키워드	내용 요약
	일	돌봄	생활		
002		○	○	반찬지원, 양육도우미, 정서지원	진업 주부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개선안
012		○	○	놀이, 문화, 키트 대여	자녀의 놀이·문화 욕구해소를 위한 키트 제작 및 대여 사업
016		○	○	안심돌봄, 급식	등교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안심돌봄미 제도 및 급식 제공 시스템
003		○		홈스쿨, 식음료 무료 지원	돌봄과 가사노동 지원 방안
015		○		양육, 심리상담, 제도	육아로 지친 여성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의 지원
026		○		시간제 돌봄지원, 신뢰성 있는 시스템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지원 시스템 구축
004		○	○	정서치유, 꽃, 지역농산물	시민 인식 개선, 지역 상생 방안 제안
006		○	○	어린이, 마스크, 지역식재료	어린이용 마스크 지원 및 지역 식재료 플랫폼 마련
013		○	○	함께, 반찬, 배달	반찬과 요리 배달 지원, 온가족 한달치 마스크 지원
020		○	○	심리상담, 취약계층 방문, 의견수렴	돌봄기관의 이용제한보다는 철저한 방역관리, 지원 / 심리프로그램 운영(실시간 모니터링) / 여성 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 마련
022		○		반조리식품	
024		○		도서관, 전자책, 오디오북	
027		○		신후우울증, 이벤트, 교류	개인적 해소법
028		○	○	주거안전, 쉼터하우스, 플랫폼	여성 전용 쉼터하우스를 지원하고 희망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개발
031		○		학교, 급식, 사회적활동	
032		○		50대 여성, 운동, 온라인	단체영상통화를 이용해 각자의 집에서 운동과 코칭
033		○		심리치유프로그램	
035		○		온라인, 양육, 자격증 교육	
036		○		식단표, 요리법	

일련번호	영역			키워드	내용 요약
	일	돌봄 생활	보건		
037		○		냉장고 털기, 레시피	
038		○		반조리음식, 배달	
039		○		무지개푸트마켓, 재난키트	
040		○		유튜브, 식단작성	
041		○		운동, TV채널	
042		○		레시피, 온라인판매, 온라인 문화수업	
043		○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044		○		놀이방법 및 레시피 공유, 책, 영화 배포	
045		○		집수리, 공구공유, 플랫폼	집수리 및 정비를 위한 공구를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011			○	어린이집, 마스크, 보육교사	
014			○	자가격리 공간, 대중교통, 자원봉사자	공공시설물을 자가격리공간으로 활용, 승용차요일제 폐지(서구), 자원봉사자를 통한 돌봄 지원
019			○	마스크, 보관	현관에 마스크를 걸어 둘 수 있는 고리 부착
034			○	백신, 방역	
017				판단 불가	

2장 워킹그룹 참여자 활동 보고서 (가나다 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형 돌봄교사 지원 정책

권 순 지

I 제안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학교 긴급 돌봄으로 메웠지만 돌봄전담사를 위한 안전 지침과 합당한 처우는 전무하며, 돌봄 수용인원 확대를 위한 그간의 초등 돌봄 교실 관련 정책에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돌봄전담사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난시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더욱 취약한 조건에 놓여 고통받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구체적 현실을 통해 그간 한국 사회가 펼쳐온 돌봄 관련 정책이 결국 그 주체인 여성의 관용과 희생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이 드러남

II 목적

- 재난의 시기에도 필요한 아동의 사회적 돌봄과 돌봄의 주체인 여성이 고립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도모
-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교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의 노동 권리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둠
- 초등 돌봄 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질적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화된 지역 돌봄 인재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돌봄의 사회적 가치 상승 및 재난 시에도 안전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

III 바이러스 재난 속 학교 긴급 돌봄 현황

1) 긴급 돌봄 관련 정부 정책¹⁾

-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 돌봄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

1) 정부 보도자료 (2020.02.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긴급 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며,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 및 긴급 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며, 긴급 돌봄 전담 인력(학생 돌봄), 지원인력(돌봄 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 및 소독 등), 책임 인력(현장 총괄)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
- 긴급 돌봄은 학교장 책임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참여하고,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함

[표 2-1] 전국 초등학교 긴급 돌봄 참여 현황

순서	시도	초등학교	학생수	참여 현황	
				초등학교	학생수
전체		6,117	2,721,484	4,150	48,656
1	서울	573	416,176	541	12,759
2	부산	299	154,912	202	1,119
3	대구	225	123,955	149	568
4	인천	252	159,457	223	3,396
5	광주	153	86,719	99	613
6	대전	149	81,863	130	1,613
7	울산	122	68,133	105	1,053
8	세종	48	28,835	43	1,042
9	경기	1,291	767,514	1,043	12,241
10	강원	366	74,049	140	954
11	충북	263	85,950	131	763
12	충남	420	121,126	215	2,098
13	전북	420	95,420	234	1,875
14	전남	426	93,524	280	3,255
15	경북	491	130,856	174	775
16	경남	512	192,033	351	2,927
17	제주	107	40,962	90	1,605

주 : 운영기간: 20.03.02~03.06 (5일간)

출처 : 정부보도자료(2020.02.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를 바탕으로 재정리

2) 대전시 초등학교 긴급 돌봄 실태 및 돌봄 인력 처우 현황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0년 3월 돌봄교실 담당 초등 돌봄전담사는 총 399명으로 돌봄교실 한 곳당 1명의 돌봄 전담 인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²⁾
- 2020년 3월 조사 결과 약 1,600명이었던 긴급 돌봄 참여 학생 수가 4월엔 2배 가량 늘어 3,568명에 달하였고 한 학교당 20~30여 명의 수요 발생함. 그러나 돌봄전담사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제한되어 있고, 코로나19의 확산 전부터 온종일 돌봄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쌓인 업무 피로도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돌봄 전담인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학교 긴급 돌봄 안정적 운영의 시급함이 제기됨³⁾

2) 2020.03.18_오마이뉴스."긴급 돌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대책을 마련하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3563)

3) 2020.04.21_디트뉴스."초등 돌봄 수요 급증..."인력 총원 등 대책 마련해야"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695>)

- 코로나 장기화로 학교현장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돌봄교실은 상시 운영을 이어가면서 돌봄전담사들의 피로는 증가하고 있음. 돌봄전담사들은 기존업무와 행정업무를 비롯해 2020년 7월 기준 한 학교당 약 60명까지 늘어난 긴급 돌봄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관리, 발열 체크 대장 작성, 마스크 안내 등 방역 관련 생활지도 및 안전 업무까지 도맡게 되었음⁴⁾
- 긴급 돌봄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음은 물론 정부 방침과 달리 교육 현장은 돌봄교실 참여 학생이 늘면서 학생 간 거리두기 유지가 무색해졌고, 교실 환기나 소독과 같은 방역과 예방수칙 지도도 버거운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전담사들은 관심에서 제외됨
- 대전지역 학교 현장에서 돌봄전담사들은 학생 출결, 생활지도, 안전지도, 돌봄교실 연간·월간·주간 운영계획 작성 및 프로그램 관리, 급·간식 준비 및 제공과 사후처리, 그 외 돌봄교실 관련 다양한 업무 협조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제기됨⁵⁾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학교 돌봄의 과제

-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확산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채용된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중 80%가 시간제 노동자(4시간)이며 코로나 발생 이후 돌봄교실에 요구된 늘어난 업무에 비해 노동 시간이 부족하여 초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각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해지면서, 돌봄전담사는 비공식적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 오로지 돌봄전담사의 의욕과 개인 역량으로만 채워지는 돌봄교실은 학교 돌봄의 질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저비용 불안정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⁶⁾
- 학비노조(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약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이 늦춰지면서 긴급돌봄의 수요는 더 높아졌지만, 본래 정규교사들의 업무까지 떠맡은 돌봄전담사들은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휴식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였음
- 이에 교육현장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사회적으로 향상시켜야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재난 시대의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것으로 보임⁷⁾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과 일자리지원 같은 정책은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큰 위기에 봉착한 돌봄 노동과 같은 대면 업종이 아닌 전통적인 남성 위주 업종에 집중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 노동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만 할 것임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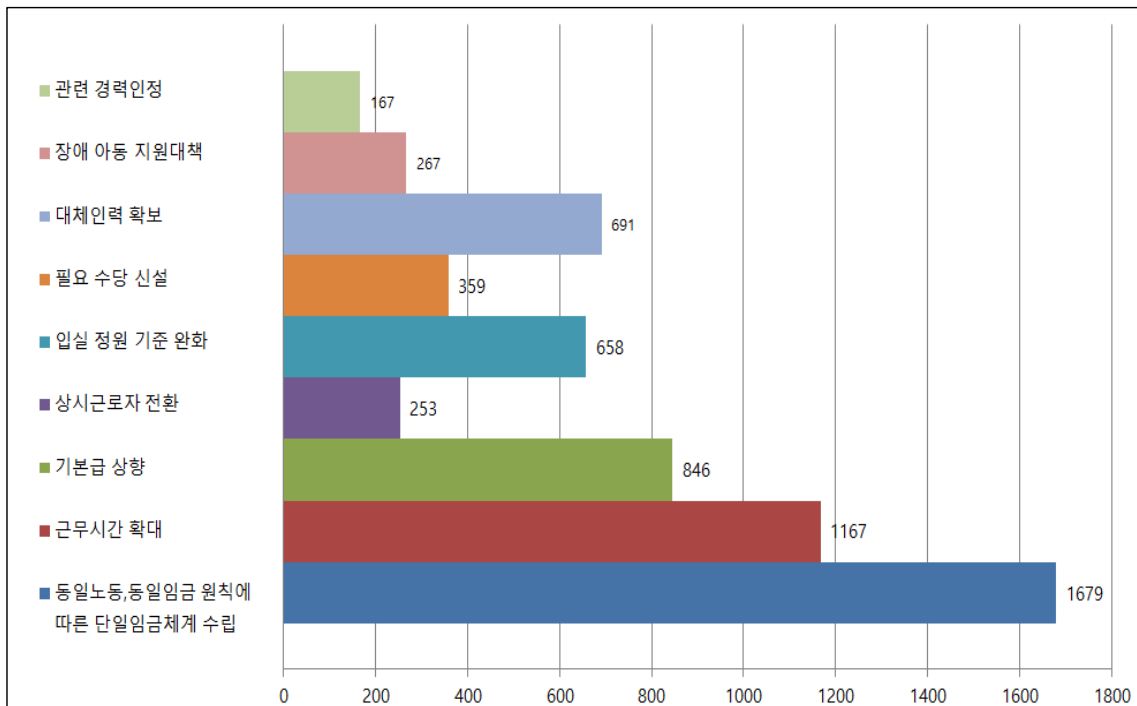
4) 2020.07.09._충청투데이.“돌봄전담사 일 많아 공공·방과후강사 일 없어 막막”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142>)

5) 대전광역시의회 보도자료(2019.06.13.).“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 의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간담회 개최.”

6) 2020.05.21._오마이뉴스.“멀티 플레이어 돌봄전담사는 왜 정규직이 아닌 말인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42840)
2020.08.09._JTBC 뉴스.“돌봄전담사 초과 근무는 일상, 1학기 버텼지만.”
(<https://news.v.daum.net/v/20200809194818445>)

7) 2020.06.27._노컷뉴스.“코로나로 업무 가중, 처우는 열악...학비노조 돌봄교실 법제화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556>)

8) 2020.09.17._경향신문.“코로나 시대'의 여성들, 무급 돌봄노동 커지고 일자리 줄어 돌봄 뉴딜은 왜 없나.”



[그림 2-1]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응답 결과
출처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보도자료(2019.11.21.)

V 정책 제안

- 본 활동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영역 내에서 더욱 불합리한 노동 현실에 놓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바이러스 재난을 극복하는 지역 공적 돌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초등돌봄전담사 중심의 정책을 제안함

1) 대상

- 대전 149개의 공·사립 초등학교의 전일제(8시간)/시간제(4시간) 돌봄전담사

2) 추진 계획

- 초등 돌봄 교실의 양적 팽창에 따라 학교 돌봄 수용인원과 운영시간이 늘고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등 각종 부가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타당한 업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역 돌봄전담사 시간제 철폐 및 전일제 채용 확대 논의가 필요함
- 업무 강도에 따른 합당한 임금 상승을 위해 대전광역시 생활 임금 조례에 근거한 돌봄전담사 기본급 책정 및 재난으로 인한 긴급 돌봄 업무 시 보상수당 지급
-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시 긴급 돌봄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약이 있는 돌봄전담사를 위한 마스크, 손 소독제, 안전 매뉴얼 등의 안전 키트 제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71139001&code=940100)

- 공교육 내 돌봄의 가치와 돌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돌봄전담사에서 돌봄교사로의 명칭 변경

3) 예산 방안

-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예산에 따라 지역 돌봄 인재 지원 기금 확보
- 생활 임금 적용 : 1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1일 임금 80,400원 (2020년 대전시 생활임금기준 적용)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수당 지급. 관내 돌봄전담사의 기본급이 이와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추가 지급
- 긴급 돌봄 보상수당 :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재난 위험성에 비례해 해당 기간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계화
- 재난 안전 키트 : 최저단가 3,000원 * 149 학교 * 10개 = 4,470,000원
 - ▶ 1회 제공 이후 재난 상황에 따라 추가 제공 여부 논의

VI 기대효과

- 초등학교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따른 지역 공적 돌봄의 질적인 향상을 마련하고 돌봄 인재 지원을 통해 팬데믹 시대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적 가치인 건강한 지역 돌봄 모델 구축
- 여성의 돌봄 노동이 저임금으로 폄하되는 것을 막아 돌봄 노동이 주를 이루는 여성 일자리의 안정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돌봄의 젠더화와 그로 인한 불평등 방지

참고자료

대전광역시의회 보도자료(2019.06.1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보도자료(2019.11.21.).

정부 보도자료(2020.02.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경향신문》, 2020.09.17. “코로나 시대’의 여성들, 무급 돌봄노동 커지고 일자리 줄어…돌봄 뉴딜은 왜 없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71139001

《노컷뉴스》, 2020.06.27. “코로나로 업무 가중, 처우는 열악…학비노조 돌봄교실 법제화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556>

《디트뉴스》, 2020.04.21. “초등 돌봄 수요 급증...”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해야.”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695>

《오마이뉴스》, 2020.03.18. “긴급 돌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대책을 마련하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3563

《오마이뉴스》, 2020.05.21. “멀티 플레이어 돌봄전담사는 왜 정규직이 아닌란 말인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42840

《충청투데이》, 2020.07.09. “돌봄전담사 일 많아 끙끙 · 방과 후 강사 일 없어 막막”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142>

《JTBC뉴스》, 2020.08.09. “돌봄전담사 초과 근무는 일상, 1학기 버텼지만.”

<https://news.v.daum.net/v/20200809194818445>

대전 여성예술인 창작활동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공 해 영

I 제안 배경

- 2020년 전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예술인들에게 생활비 지원은 물론, 전 세계의 많은 예술단체 혹은 기관들이 공연 및 전시의 형식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국외는 물론 국내의 공연 예술 분야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등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음
-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전면 중지됨으로써 그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긴급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3차례에 걸쳐 ‘지역예술인 기초 창작 활동비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술인 1,020명에게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억 2천만원을 지원함⁹⁾
-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은 4,12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번에 지원받은 예술인은 1,020명에 불과함. 이것은 대전시 예술인 전체의 25% 수준임

[표 2-2]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 현황¹⁰⁾

(단위: 명)

구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전	344	1,519	59	417	105	333	114
전국	13,297	46,218	1,974	11,087	3,899	11,408	7,973

(계속) →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합계
310	76	144	259	39	21	380	4,120
25,547	10,328	6,614	18,499	5,806	1,934	13,956	178,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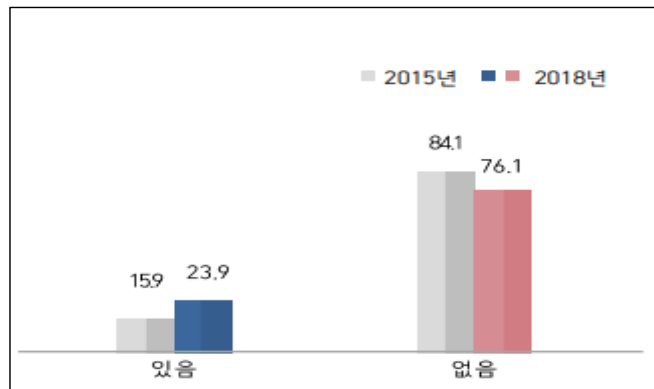
주 1. 예술인 조사 모집단(예술인 현황)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2018, p.6)

주 2. 전국 문화예술인 합계 178,540명 (지역 미상 8,044명 포함)

9) 대전문화재단. “창작활동 지원부터 의료비, 각종 상담까지. 다양한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 (<https://blog.naver.com/daejeoncaf/222046998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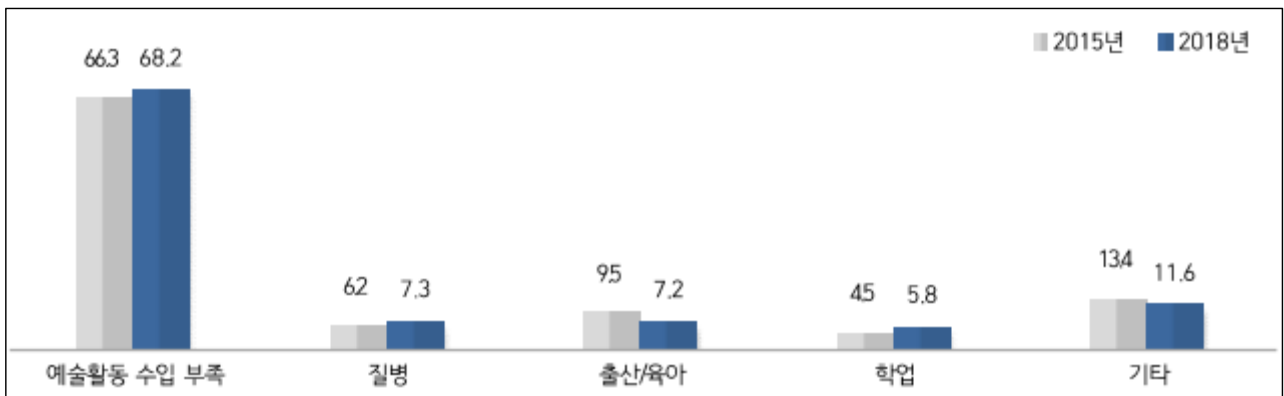
10)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p.7.

-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9%로 2015년 15.9% 대비 8.0%p 증가함 (그림 2-2)



[그림 2-2] 예술 경력 단절 경험 (단위 : %)

- 예술활동을 포기한 이유로는 ‘예술 활동 수입 부족’이 68.2%, ‘질병’ 7.3%, ‘출산/육아’ 7.2%, ‘학업’ 5.8%, ‘기타’ 11.6% 순으로,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예술경력단절의 주요인으로, 그 수치가 2015년 66.3%에서 2018년 68.2%로 1.9%p 증가함 (그림2-3)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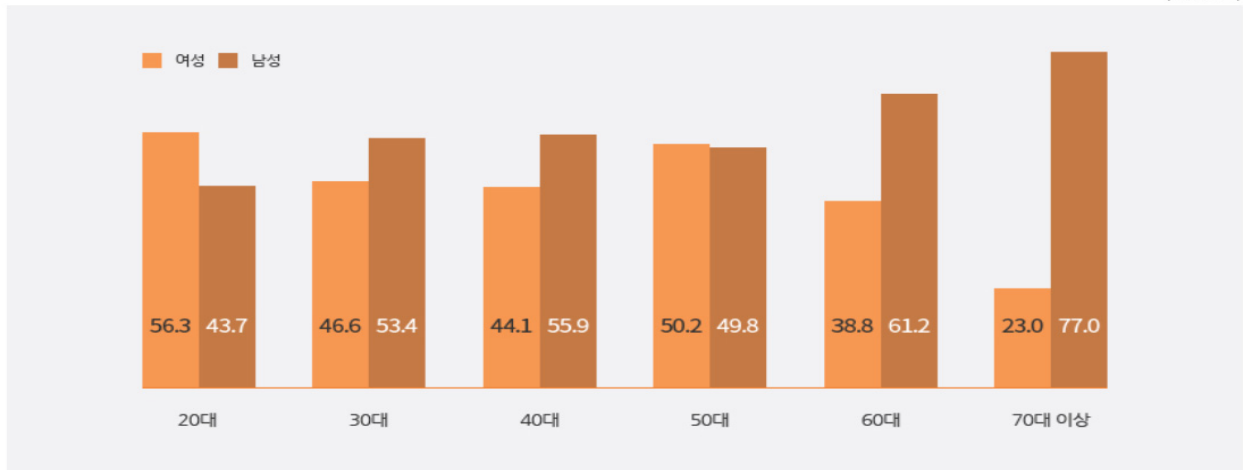


[그림 2-3] 예술경력 단절 이유 (예술 경력 단절 경험자 = 1,196, 단위: %)

-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 중 예술인 성별 연령 분포도를 살펴보면, 20대에 여성예술인들이 남성예술인들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30대와 40대에는 남성예술인들에 비해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남. 이것은 30대, 40대에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예술인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음을 암시함 (그림2-4)¹²⁾

11)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p.29.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news.kawf.kr/?searchVol=7&subPage=02&searchCate=03&idx=116>.



[그림 2-4] 예술인 연령별·성별 분포도

- 앞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부분의 문화예술 활동이 취소, 연기되는 시점에 예술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리라 추측됨
- 이 중 여성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수입 부족’, ‘예술 활동 취소·연기’, 거기에 ‘결혼·출산·육아·가사일’ 등의 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생계 위협은 물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임
- 국내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복지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19 긴급지원정책과 같이 일시적 (현금)지원으로는 예술가들이 처한 생계와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함
- 따라서 지역 여성예술인들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은 물론 다양한 예술 콘텐츠 개발 지원이 필요함

II 목적

-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은 물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전시 여성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코로나 19 시대를 위한 지원이 아닌, 코로나 19를 계기로 지역 여성예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코로나 19 이후에도 대전시 여성예술인들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국외 사례

Coronavirus

Germans sing 'Bella ciao' from rooftops in solidarity with Italians under coronavirus lockdown

20 March 2020, 17:14 | Updated: 20 March 2020, 17:35



Germans sing in solidarity with Italians. Picture: YouTube/bamberg7tu

By Maddy Shaw Roberts

출처: <https://classicfm.com/music-news/coronavirus/germans-sing-sloidity-italian-neighbours>

독일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령하에 이탈리아 사람들과 연대하여 지붕에서 '벨라 차오(안녕 내사랑)'을 노래하는 독일인들]

독일 밤베르크의 바이에른 마을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의 연대에서 이탈리아 저항 노래 '벨라 차오(안녕 내사랑)'를 지붕과 창문에서 노래했습니다.

가디언 뉴스(2020년 3월 21일) -

Rachel Hosie Mar 14, 2020, 6:35 PM



Italians have come together to sing and dance on their balconies while self-isolating. Twitter/John Nichols/Biagio Fucci/Lenoardo Carella

이탈리아

격리 된 이탈리아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속에서 발코니와 창문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 인사이드(2020년 3월 14일) -

출처 : <https://www.insider.com/coronavirus-quarantined-italians-sing-together-from-balconies-and-windows-2020-3>

2. 국내 사례

1) 대전시립예술단의 '화목한 문화산책 <발코니 콘서트>'¹³⁾

-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시립예술단이 기획한 화목한 문화산책 <발코니 콘서트>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시민들과 소상공인, 방역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로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는 대면 공연이 아닌 예술단이 직접 찾아와서 공연을 하므로, 편안하게 발코니에서 감상하는 취지로 진행됨
- 5개(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 합창단, 국악 연주단) 장르의 공연예술로 구성
-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동구 및 대덕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총 7회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취소되었음
-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중구와 유성구 지역의 20여 곳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공연대상 아파트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임

“대전시립예술단의 ‘발코니 콘서트’는 지난 6월 23일(화)부터 시작하여 7월2일(목)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는 행사로 대덕구에서는 6월 30일(화) 법2동 보람 아파트에서, 7월2일(목)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 2단지과 3단지에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대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관계로 보람아파트에서만 이날 진행되고 선비마을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발코니 콘서트>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전시립예술단 홈페이지)



<대전시립예술단 화목한 문화산책 '발코니 콘서트' 신청 안내>

대전시립예술단 '발코니 콘서트'유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대전시립예술단의 정상급 공연을 제공하여 행복지수를 높여 드리하고자 각 구 별로 찾아가는 공연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코니를 바라보며 공연을 진행하고 주민들은 자택 발코니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의 무료 공연입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이번 공연의 **유치를 원하는 중구 지역 아파트의 신청을 받습니다.**

- 공연 명 : 대전시립예술단 화목한 문화산책 '발코니 콘서트'
- 일 시 : 10월 13일(화), 15일(목), 20일(화), 22일(목) 15:00, 16:30, 18:00
- 대 상 : 중구 지역 아파트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
- 팩스 : 042)270-8329 / 이메일 : artdj.kr@gmail.com
- 접수기간 : 9월 7일(월) ~ 9월 11일(금) 17:00까지
- 공모발표 : 선정아파트 개별통보
- 문의사항 : 대전시립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042)270-8327

※ 출연료는 별도 없으며, 접수 후 일정 및 연주장소의 여건과 부대시설 등 협의를 통해 최종 신청 여부를 결정.

2020. 8. 21.
대전광역시립예술단장

사진 출처 : 2020.07.29._충남일보 (<http://www.chungnamilbo.co.kr/news/userArticlePhoto.htm>)
대전시립예술단 홈페이지(<http://www.artdj.kr/html/artdj/>)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www.daedeok.go.kr/dpt/DPT.do>
대전시립예술단. 홈페이지. <http://www.artdj.kr/html/artdj/>

2)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¹⁴⁾

- 광주·전남 청년예술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팀’은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사비를 들여 공연을 진행함. 공연장소, 공연장 방역, 선물, 현장중계 등은 주위로부터 지원을 받음
- 이들은 지난 3월, 팀 결성 후 5월 7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비대면 방식의 ‘베란다 콘서트’를 열어 공연 물꼬를 틔. 이후 장마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취소 연기되면서 비대면 형식의 ‘드라이브 in 콘서트’를 기획해 지난 7월 18일 주차장 공연을 처음 선보임
- 콘서트는 무료진행이 원칙이어서 공연비를 강요하지 않는 대신, 콘서트에 감동받은 관람객이 후원금 형식으로 공개된 은행계좌에 입금해 주면, 다음 콘서트 진행과 어린이 재단,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 등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됨



사진 출처:

2020.07.29. _무등일보.(<http://m.honam.co.kr/detail/EHdc4G/609645>)

2020.07.21. _뉴스시스.(https://mobile.news1s.com/view.html?ar_id=NISX20200720_0001101354#_eniple)

- 국내 사례의 경우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인천 연수문화재단의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강남구청의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 등) 공연을 기획하고 있음

14) 《뉴스시스》, 2020.7.29. “함성은 경적·박수는 깜빡이’ 청년예술가들 주차장·아파트 공연”. 《무등일보》, 2020.7.29. “아파트 베란다·주차장서 공연 즐기세요” 참고.

1. 창작활동 지원

1)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여성예술인 또는 예술 단체의 선정은 자격 기준의 마련과 대상 장르의 선정과정을 통해 장르별 필요 인원을 선발하는 단계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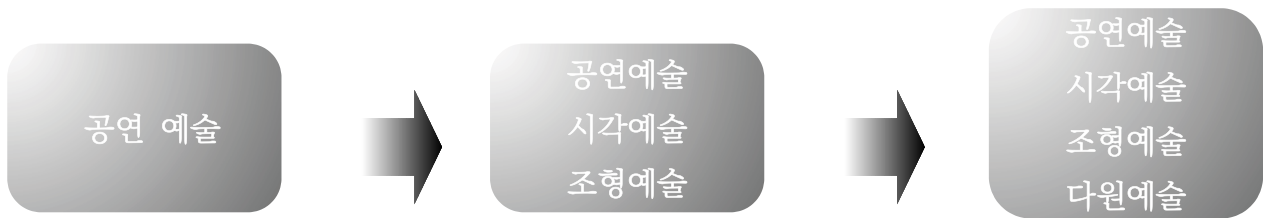
[표 2-3] 지원 대상 구성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자격	대전지역 여성예술인 예시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경력시스템에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된 전문예술인 예시 2) 전문예술단체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본인) 가입자 예시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경력시스템 등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술가임을 증명할 만한 서류 제출 등 (작품활동 실적 및 경력 등)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할 수 없었던 예술인들에 대한 유연한 기준 검토 필요																																																
예술 장르	음악, 국악, 대중예술, 무용, 연극 미술(디자인), 공예, 문학, 사진, 건축, 방송연예, 영화, 만화, 기타 등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구성	1차 접근: 지역 내 예술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예)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차 접근: 지역 내 예술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독립여성예술가 발굴 및 DB 구축 3차 접근: 대전광역시 예술인 통합시스템을 통한 인력 활용 초기에는 예술인 섭외 및 구성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 하되, 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3차 접근을 통한 대전지역 여성예술인 통합시스템 (DB)을 활용하여 국공립 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예술인들을 지원하는데 있음 예술 장르별 성별의 분포도는 다르나, 문학, 미술, 공예, 음악, 국악, 무용, 만화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인지하여 예술인 구성시 검토 필요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¹⁵⁾ (단위: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문학</th> <th>미술</th> <th>공예</th> <th>사진</th> <th>건축</th> <th>음악</th> <th>국악</th> <th>대중 음악</th> <th>방송 연예</th> <th>무용</th> <th>연극</th> <th>영화</th> <th>만화</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남자</td> <td>7.0</td> <td>23.6</td> <td>1.5</td> <td>8.3</td> <td>3.5</td> <td>6.3</td> <td>6.7</td> <td>17.1</td> <td>5.7</td> <td>1.5</td> <td>11.1</td> <td>4.5</td> <td>1.0</td> <td>2.2</td> <td>100.0</td> </tr> <tr> <td>여자</td> <td>9.8</td> <td>28.1</td> <td>3.7</td> <td>3.8</td> <td>0.3</td> <td>7.8</td> <td>9.5</td> <td>9.5</td> <td>3.9</td> <td>6.5</td> <td>10.1</td> <td>3.7</td> <td>1.2</td> <td>1.9</td> <td>100.0</td> </tr> </tbody> </table>	구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 음악	방송 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합계	남자	7.0	23.6	1.5	8.3	3.5	6.3	6.7	17.1	5.7	1.5	11.1	4.5	1.0	2.2	100.0	여자	9.8	28.1	3.7	3.8	0.3	7.8	9.5	9.5	3.9	6.5	10.1	3.7	1.2	1.9	100.0
구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대중 음악	방송 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합계																																		
남자	7.0	23.6	1.5	8.3	3.5	6.3	6.7	17.1	5.7	1.5	11.1	4.5	1.0	2.2	100.0																																		
여자	9.8	28.1	3.7	3.8	0.3	7.8	9.5	9.5	3.9	6.5	10.1	3.7	1.2	1.9	100.0																																		

2) 예술 기획 및 운영

- 1차적으로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및 운영을 하면서 점차 시각예술, 조형예술, 다원예술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감

15)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pp.36-37.



[그림 2-5] 예술기획 및 운영 범위 확장

○ 이미 완성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아닌만큼 공연예술가나 관객 모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질서 유지 및 안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장소 선정 및 공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

[표 2-4] 공연예술 운영 가이드 라인 : 찾아가는 문화예술

구분	내용 (공연예술 분야 중심)
관람 대상	대전시민 (남녀노소 모두)
관람 장소 및 방법	<p>아파트 단지 내 공터 - 아파트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자신의 집 발코니 혹은 창문 등을 통해 공연 감상</p> <p>주택가 - 주택가 주민들은 자신의 집 발코니, 창문, 옥상, 마당 등을 활용해 공연 감상</p> <p>자가격리시설 -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등은 시설의 옥상, 창문 등을 통해 공연 감상. 예술가-관객, 관객-관객 등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술가와 관객 모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짐</p> <p>자동차극장, 캠핑장 등</p>
관람 장소 섭외	<p>- 지역 주민 단체와 대전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장소 섭외</p> <p>- 사전 공연 관람 신청을 통한 장소 확보</p>
관람 장소시 검토	<p>다양한 공연 장소를 섭외함으로써 대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깝고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p> <p>공연차량의 진입 혹은 공연장소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 주택 밀집 지역 등의 경우 대안책을 마련해야 함</p> <p>안전점검 : 발코니, 옥상, 창문 등에서 관람할 경우 추락과 같은 위험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관람자들에게 사전에 주의사항을 알림</p>
관람료	무료
코로나 19 기금 모금	<p>목적 -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모여진 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전액 사용</p> <p>방법 1 - QR 코드 활용. 대전시청 혹은 관련 홈페이지나 대전시 SNS에 게시되어 있는 기부 QR코드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앱(자체 개발이 필요 할 수 있음)으로 기부액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기부가 완료되는 형식</p> <p>방법 2 - 계좌이체, 현장기부, facebook의 기부페이지, 크라우드 펀딩 등 활용</p>
차량 사용	<p>공연 트럭 - 장비 및 부품 이동의 용도, 공연무대의 용도</p> <p>단체 버스 - 버스의 규모는 공연자 수, 스태프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 코로나19 시대에 마주한 여성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것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관객 모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공연장 혹은 전시관 등을 찾아오는 방식이 아닌, 예술가들이 관람객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일종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임
-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예술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마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이마저도 취소, 연기되는 일이 많음
-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각 예술 분야별 문화·예술기획은 물론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제작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 또한,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및 운영. 그리고 점차 시각예술, 조형예술, 다원예술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그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3) 예산 방안

- 기본 방안: 대전광역시의 전액 지원
- 세부 방안: 사업의 구체성, 운영 규모, 기획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2. 콘텐츠 제작 지원

1) 여성예술인 웹사이트 운영

- 커뮤니티 구성, 취업(여성예술인 파견 사업 외), 기금모금 등
- WomenArts, <http://www.womenarts.org>

2) 아트마켓을 통한 예술작품 전시 및 판매의 장 확대

- 스타벅스, 성심당 등과 같이 지역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카페아트마켓을 통한 작품 전시·판매

3) 대전 문화예술 VR App 제작

- Google Arts and Culture VR: 전 세계 박물관에서 선별한 예술작품 감상
- Netflix VR: TV쇼,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감상
- YouTube Live-streams in VR
- 필요시, 헤드기어 대여 방안 검토

- 대전 여성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기를 불어 넣고, 대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가깝고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대전형 여성예술인들을 양성·발굴하고, 다양한 예술 콘텐츠 개발로 대전시만의 예술 브랜드 창출 기대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www.daedeok.go.kr/dpt/DPT.do>)
-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 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deokgu/222023637867>)
- 대전시립예술단. 홈페이지. (<http://www.artdj.kr/html/artdj/>)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main.jsp>)
-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C%B0%BE%EC%95%84%EA%B0%80%EB%8A%94-%EB%B2%A0%EB%9E%80%EB%8B%A4-%EC%BD%98%EC%84%9C%ED%8A%B8-105210867844607>)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news.kawf.kr/?searchVol=7&subPage=02&searchCate=03&idx=116>)
- 《강원도민일보》, 2020.04.14. “정부 예술인복지 혜택 1200명 그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8756>)
- 《뉴시스》, 2020.7.21. “‘합성은 경적·박수는 깜빡이’ 청년예술가들 주차장·아파트 공연”.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720_0001101354#_enliple)
- 《무등일보》, 2020.06.01. “코로나로 배굼는 지역 공연계…지원책 절실”
(<http://www.honam.co.kr/detail/EHdc4G/604529>)
- 《무등일보》, 2020.7.29. “아파트 베란다·주차장서 공연 즐기세요”.
(<http://m.honam.co.kr/detail/EHdc4G/609645>)
- 《아이뉴스24》, 2019.04.04. “전업 예술인 76% 프리랜서…연평균 수입 1천281만원”.
(<http://www.inews24.com/view/1169016>)
- 《울산매일신문》, 2020.03.18. “코로나19' 울산예술인 피해 막대 '조사에 그치면 안돼'”.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442>)
- 《이데일리》, 2020.04.14. “[생활확대경] '소득 0원' 예술인이 이렇게 많다니”.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8726625736120&mediaCodeNo=257&OutLnkChk=Y>)
- 《충남일보》, 2020.7.29. “대전시립예술단 발코니 콘서트 장소 공모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해 9월 유성구서 찾아가는 공연 -”. (<http://www.chungnamilbo.co.kr/news/userArticlePhoto.html>)
- 《CMB대전방송》, 2020.08.03. “코로나19로 지역축제 취소… 공연업계 고사 위기”
(<http://www.cmbdj.co.kr/ab-991-17381>)
- 《CBS News》, 2020.03.13. “Quarantined Italians sing together from balconies”.
(https://www.youtube.com/watch?v=7NySV_U_voc)

《Classicfm》, 2020.03.20. “Germans Sing ‘Bella Ciao’ from rooftops in Solidarity with Italians under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classicfm.com/music-news/coronarivus/germans-sing-solidarity-italian-neighbours/>)

《Guardian News》, 2020.03.21. “Coronavirus: German sing Bella Ciao from rooftops in solidarity with Italy”. (<https://www.youtube.com/watch?v=z5CrScIHAuE>)

《Insider》, 2020.03.14. “Italians have come together to sing and dance on their balconies while self-isolating”.
(<https://www.insider.com/coronavirus-quarantined-italians-sing-together-from-balconies-and-windows-2020-3>)

코로나 19 대응 “여성 생(生)활 기(技)술 아카데미

업 속 희

I 목적

- 여성의 기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여성과 기술 주제의 워크숍 교류, 여성 친화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네트워크 강화, 젠더에 대한 담론 연구 교류 강화
- 설명이 있는 공구 사용, 여성에 맞는 공구, 실습기회 마련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
-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자립성을 높이고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강화
- 여성이 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
- 나도 모르게 잠재해 있는 생활 속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 마련
- 기술을 가르치는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젠더감수성이 풍부한 강사의 기술교육, 스스로 해보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함
- 재난(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전문기술 교육 과정을 통하여 취업기회 마련과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II 여성기술 자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생활 속 기술교육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여성은 기술에서 더욱 소외되어 왔으며 막연한 두려움(무서움)과 낮은 인식 때문에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1) 여성 공학 및 기술인력 양성교육

- 여성 공학 및 기술인력 양성 교육 분야에서 2019년 학교급별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재적 여학생수는 1,266천명으로 재적 학생수 2,951천명의 42.9%이며, 공학계열 여학생 수는 142천명으로 공학계열 학생수(818천명)의 17.4% 수준임
- 2019년 학교급별 계열별 학생 분포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큰 계열은 공학계임
- 학교급별 공학계 학생분포의 성별 차이는 각각 40.3%p(전문대), 26.1%p(대학교), 20.6%p(대

학원)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공학계의 여성비율은 10.3%(전문대), 19.7%(대학교), 19.2%(대학원)로 나타났음

[표 2-5] 공학계 재학생 비율

(단위 : %, 천명, %p)

구분	재적 학생수	재학생		공학계		공학계 성별차이 (B-A)	여성비율	
		전국	여성	남성	여성 (A)			남성 (B)
계	2,951	1,266 (42.9)	1,685 (57.1)	818(100.0)				
				142 (17.4)	676 (82.6)			
공학계	전문대	644	271 (42.1)	372 (57.9)	20 (7.5)	179 (47.8)	159 (40.3)	10.3
	대학교	1,988	834 (42.0)	1,155 (58.0)	112 (13.4)	455 (39.5)	343 (26.1)	19.7
	대학원	319	161 (50.5)	158 (49.5)	10 (6.3)	42 (26.9)	32 (20.6)	19.2

주 : 여성비율=여학생수/전체학생수 ×100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국의 성인지통계」재구성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2019년 고학력 여성(전문대 이상)의 전공계열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보건(74.6%), 복지(70.2%) 순이었고, 남성은 정보통신기술(91.7%), 보건(90.8%), 공학, 제조·건설(9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 전공계열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p)

성별	2019												
	계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학연론 정보학	경영 행정 법학	자연과학 수학, 통계학	정보 통신 기술	공학 제조 건설	농림 어업 수의학	보건	복지	서비스
여성	67.8	68.4	65.2	62.1	67.5	69.8	65.5	67.4	67.8	69.4	74.6	70.2	65.5
남성	87.2	76.7	89.0	82.2	80.4	84.9	85.9	91.7	90.5	81.9	90.8	82.5	88.6
차이	19.4	8.3	23.8	20.1	12.9	15.1	20.4	24.3	22.7	12.5	16.2	12.3	23.1

주 : 2019년 상반기 기준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국의 성인지통계」

3)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 15~54세 기혼 여성 인구는 8,844천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며 이중 결혼·출산·육아·돌봄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인구는 1,699천명으로 비취업 기혼여성의 50.5% 수준임

[표 2-7] 기혼 경력단절 여성인구·경력단절 여성 비율

(단위 : 천명, %)

구분	15~54세 기혼여성(A)	비취업 기혼여성(B)	경력단절 기혼여성(C)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C/B %)
2014	9,733	3,957	2,164	54.7
2015	9,561	3,863	2,073	53.7
2016	9,376	3,727	1,924	51.6
2017	9,159	3,574	1,831	51.2
2018	9,005	3,457	1,847	53.4
2019	8,844	3,366	1,699	50.5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국의 성인지통계」재구성

- 2018년 현재 전공계열별로 결혼·출산·육아·돌봄으로 경력단절 된 기혼여성 수는 인문·사회계열 (548천명), 자연·공학계열(275천명) 순으로 많고, 비취업자 비율은 의약계(60.6%), 자연·공학계 (58.8%) 순으로 높음

[표 2-8] 전공계열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 천명, %)

구분	기혼여성(A)	비취업(B)	(B/A %)	경력단절(C)	(C/B %)
합계	5,222	2,130	(40.8)	1,171	(55.0)
인문·사회계열	2,398	1,032	(43.0)	548	(53.1)
자연·공학계열	1,108	468	(42.3)	275	(58.8)
의약계열	418	128	(30.7)	78	(60.6)
기타계열	1,297	501	(38.7)	270	(53.8)

주 : 25~64세 기혼여성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국의 성인지통계」재구성

4) 여성 안전

- 2018년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35,27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18년 기준 여성 피해자 비율은 83.1%임.

[표 2-9] 강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	강력범죄 피해자수	성폭력 피해자수	전체 피해자 중 여성비율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 비율
2013	29,911	25,471	84.9	92.4
2014	34,126	29,863	84.7	90.8
2015	35,139	31,063	84.3	90.0
2016	32,963	29,357	83.6	89.0
2017	36,030	32,824	84.6	89.2
2018	35,272	32,104	83.1	87.6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국의 성인지통계」재구성

- 2018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 연령대는 남녀 모두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15세 이하 연령대의 비율이 다소 높음

[표 2-10] 2018년 성별 성폭력 피해자 연령 비율

(단위 : %)

성별	계	6세 이하	7-12	13-15	16-20	21-30	31-40	41-50	51-60	60세 이상	미상
여성	100.0	0.4	3.6	4.7	19.5	38.9	12.6	9.1	6.0	2.6	2.8
남성	100.0	1.2	7.7	5.7	18.3	34.3	13.3	9.0	7.6	2.0	0.9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국의 성인지통계」

- 2018년 집계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5,925명으로 피해자는 여성이 82.9%이고 검거 인원 중 남성이 96.6%로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범죄’양상으로 나타남

[표 2-11]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항목(1+2+3순위)

(단위 : 명, %)

		응답자 수	안전한 지역 환경	편리한 교통 환경	쾌적한 지역 환경	충분한 의료 환경	충분한 교육 환경	충분한 편의시설	부정적 시선이나 차별이 없는 환경	가족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개인이 여가 또는 휴식할 수 있는 환경	가족 내 갈등 또는 구성원 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족의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환경
전체		1000	66.5	53.0	39.4	39.2	23.2	19.9	10.7	13.7	8.8	9.8	15.8
성별	남성	247	64.4	55.5	43.7	41.7	13.8	15.4	15.0	16.2	10.5	9.3	14.6
	여성	753	67.2	52.2	38.0	38.4	26.3	21.4	9.3	12.9	8.2	10.0	16.2
응답자 유형	자녀 양육 가구	400	70.0	49.3	38.5	25.5	44.5	16.3	10.5	16.0	5.3	8.5	15.8
	노인 가구	400	60.0	54.5	38.0	56.8	8.0	21.0	7.5	13.0	10.0	12.0	19.3
	1인 가구	200	72.5	57.5	44.0	31.5	11.0	25.0	17.5	10.5	13.5	8.0	9.0

자료 : 여성정책연구원 KWDI 이슈페이퍼(2020.05.31.)

- 2020년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11 참고)
- 1인 가구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고,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공통관심사로 묶인 지역사회 내 공동체 소속, 이웃 간 자원공유 및 소통과 교류 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인 가구가 안전성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다른 환경적 특성에 비하여)가 매우 높았고, 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경찰은 주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이 되어야 함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함 (표 2-12 참고)

[표 2-12] 지역사회 특성 중 1인 가구가 중요시하는 항목

(단위 : %)

		1인가구						전체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도 ↔				매우 중요 함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도 ↔				매우 중요 함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0.5	1.5	5.5	11.0	20.5	61.0	0.4	0.9	3.8	7.3	34.6	53.0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0.5	2.0	7.5	10.5	19.0	60.5	0.7	1.3	4.5	7.7	33.9	51.9
	경찰은 필요할 때 도움을 줌	1.0	2.5	7.5	16.0	20.0	53.0	0.2	1.1	3.8	9.5	39.6	45.8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	0.5	2.5	5.5	15.0	22.5	54.0	0.4	1.1	2.8	9.9	40.7	45.1
쾌적성	금연구역 규제	4.0	8.0	13.0	17.0	23.4	34.5	1.4	3.0	6.8	13.5	44.4	30.9
	쓰레기 분리배출 잘 됨	3.0	4.0	6.0	22.0	27.0	38.0	1.0	1.6	4.2	10.6	52.1	30.5
사회 자본	이웃으로부터 신변의 위협 못 느낌	1.0	1.5	4.5	11.0	30.0	52.0	0.5	0.9	2.4	8.4	41.4	46.4

주 : 1 (전혀중요하지 않음) ↔ 6(매우 중요함)

자료 : 여성정책연구원 KWDI 이슈페이퍼(2020.05.31.)

2. 필요성

- 단순 고장 발생 시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남성 기사가 방문해 고치는 경우가 많아 방문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안전에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이중고를 경험
- 여성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생활기술 교육이 필요함
- 사적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던 영역(생활기술)을 공공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취업, 전문기술자 양성과정 통한 여성 창업지원과 여성 대표 발굴 필요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술교육과 일자리 연계,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함

IV 추진 방법 제안

1) 교육과정 분류

- 운영방법(추진방법) :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병행 가능
- 협업기관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동네 공구상, 산업단지협회, 폴리텍대학Ⅳ, 여성가족원, 대전새일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여기공협동조합(연계), 자격관련협회,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등

2) 교육 과정

◆ 1단계 :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취미 교육반

- 교육목표 : 교육기회를 다제공, 친숙함 up!,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up!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교육
- 교육기간 : 3개월 과정(상반기, 하반기 연 2회)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요일 변경 가능) 9시~ 12시(총 10회)
- 교육장소 : 대전여성가족원 또는 행정복지센터(5개)
- 교육비 지원 : 대전시 지원(1인당) 50만원 (교육수료 요건 충족시)
- 교육인원 : 15명
- 교육대상 : 여성가구 주
- 강사활용 : 여기공협동조합, 동네 공구상, 주민자치회, 자치단체 등

[표 2-13] 1단계 교육과정

회차	교육내용 (예시)	
1	공구기초 1	기술과 자립, 수공구
2	공구기초 2	전동드릴
3	내 방 1	전등
4	내 방 2	콘센트
5	내 방 3	커텐
6	현장실습 1	현장실습(1)
7	주방 1	타일
8	주방 2	실리콘
9	욕실	배관, 수전
10	현장실습 2	현장실습(2)

◆ 2단계 : 타일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 α(여성창업)

- 교육목표 : 취업, 전문기술자 양성, 자격증 취득과정, 여성창업지원(여성 대표 발굴)
- 교육기간 : 3개월 과정(상반기, 하반기 연 2회) * 기초반, 심화반(자격증 집중반)
* 영역별 세분화로 교육과정 추가 개설 가능 : (예 : 줄눈, 탄성 교육등)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요일변경가능) 9시~ 17시(총 10회)
- 교육장소 : 대전새일센터, 행정복지센터, 대전여성가족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 교육비 지원 : 대전시 지원(1인당) 80만원(교육수료 요건 충족시)
- 교육인원 : 20명
- 교육대상 : 여성 가구주

- 강사활용 : 여기공협동조합, 동네 공구상, 주민자치회, 자치단체 등

[표 2-14] 2단계 교육과정

회차	교육내용	
1	타일 기능사 OT	
1	기준잡기(수직실, 수평실 내리기)	타일 떠붙이기
2	타일 가공하기(커터기, 그라인더)	타일 떠붙이기
3	재료분리대 사용하여 코너 마감	개량 떠붙이기(미장)
4	바닥 몰탈 베딩	바닥 타일 붙이기
5	타일 떠붙이기	바닥타일 습식 시공 완성하기
6	타일기능사 자격증 도면	맞는 타일 시공하기 1
7	타일기능사 자격증 도면	맞는 타일 시공하기 2
8	본드 붙이기	압착붙이기, 줄눈 채우기
9	타일기능사와 진로이해	타일기능사와 창업
10	타일 기능사 과정 마무리	

3) 소요 예산

(1) 취미 교육반

- 대전시 자치구(5개)별 1개동 선정 시범사업 실시 또는 대전여성가족원에서 교육
 - 연간 예산 : 5개(기관) * 20,000,000원 = 100,000,000원
 - 세부 산출 : 교육비 15명 * 2회(연) * 5개구 * 500,000(1인당) = 75,000,000원
 - 운영관리비 등 2회(연) * 5개구 * 2,500,000원 = 25,000,000원

(2) 타일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 대전시 시범사업 실시 또는 대전여성가족원, 대전새일센터 등의 기관에서 교육
 - 연간 예산 : 5개(기관) * 40,000,000원 = 200,000,000원
 - 세부 산출 : 교육비 20명 * 2회(연) * 5개구 * 800,000(1인당) = 160,000,000원
 - 운영관리비 등 2회(연) * 5개구 * 4,000,000원 = 40,000,000원

V

기대효과

-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젠더 데이터 구축 마련
- 문화적 젠더 공백 채움 효과
- 여성 생활기술인 양성, 삶에 대한 자신감 향상

- 기술교육에 대한 진입장벽 낮춤으로써 체계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과 여성과 남성과의 기술 교육 격차를 일부 해소하는 기회 마련
- 여성가족원 & 폴리텍IV대학 & 평생교육진흥원 연계하여 “학점취득 + 여성일자리 확대 + 생활만족도↑” 장 마련
- 여성의 생애주기마다 만나는 고민이 다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음
- 남성 신체 사이즈 기준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그들에게 맞는 안전장비와 도구, 작업대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 확장 기회마련
-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 대표성 제고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2019 한국의 성인지 통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KWDI 이슈페이퍼_“1인 가구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2020.05.31.) 대검찰청(0000), 범죄분석.
-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보이지 않는 여자들』. 웅진지식하우스.
- 《영천뉴스》, 2020.07.20.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여기공 협동조합 손잡고 여성기술자 양성”
(<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311774>)
- 《포포스》, 2020.07.21. “여기공 협동조합_여성과 기술을 연결하는 장 만듭니다.”
(<https://ppss.kr/archives/221662>)
- 《전북타임스신문》, 16.03.14. “김제시 농촌여성 생활 기술과제 읍·면·동 순회교육 성황리에 진행”
(<http://jeonbuktimes.co.kr/news/view.asp?idx=2715>)
- 농촌진흥청 홍보자료, 18.01.03. “창녕군, 농촌 여성 생활기술교육 ‘인기’”
(http://www.rda.go.kr/board/board.do?boardId=farmcltinfo&prgId=day_farmcltinfoEntry&currPage=8&dataNo=100000741220&mode=updateCnt&searchSDate=&searchEDate=)
- Blog_‘여성기술자들의 영토를 만들다’ 의성<여기공 협동조합>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2661066&volumeNo=26951525>)
- Blog_스스로 집을 고치는 여성들의 모임 여기공의 워크숍 ‘집 고치는 여성들’
(<https://villiv.co.kr/feature/6481>)
- Blog_WISET 과학기술여성인재 아카데미 100% 활용하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setter&logNo=221596524497>)
- Blog_[로컬임팩트] 여성들을 위한 생활기술캠프 (<https://seekers.kr/837>)
- Blog_[완속회 해외탐방]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ttps://seekers.kr/791?category=667795>)
- Blog_[완속회 해외탐방] 새로운 방식의 기술교육 체험 (<https://seekers.kr/792?category=667795>)
- 이도타일직업학원 (<https://www.idoedu.kr/>)
- Blog_[주]이화동서타일 시공사례 ‘줄눈 셀프 시공 탄성 줄눈과 백시멘트’
(https://blog.naver.com/kor_choppers/221390241046)

여력여(女力女)

윤 민 영

I

제안 배경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주택수리 서비스
-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 女力女, 코로나 19 대응 여성 집수리 공구 공유 및 간편 수리 서비스
- 주택수리 서비스 like-us에서 차용
- 주택수리, 기술교육, 기술자 네트워킹, 강연 등을 개최

1) 여력여(女力女) 선정 이유

(1) 젠더 폭력에 취약한 1인가구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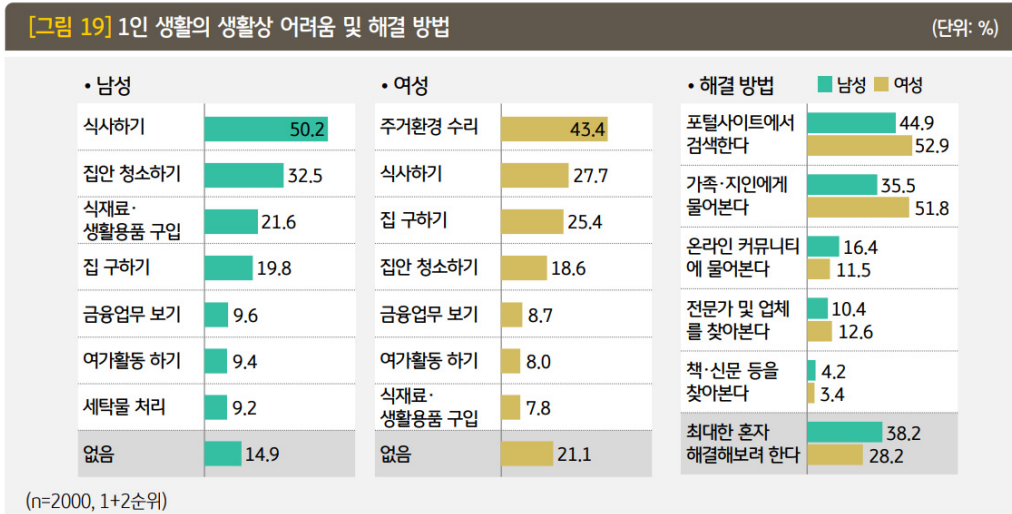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1인 가구 여성들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확대되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함.
- 또한 1인가구 여성들의 외부 기사를 집 안으로 불렀을 때 겪을 수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인식하면, 여성 전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음
-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여성 전용 집수리, 공구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임

(2)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

-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은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될 때 성·도덕적으로 흠이 생기는 것이라는 잣대가 여전히 존재함
- 혼자 살게 된 이후에도 남자 신발을 구해 현관에 뒤야 할 정도로 안전의 위협을 느껴야 함 (송제숙 저, 『혼자 살아가기 - 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中)
- 이는 1인 가구 여성을 정상가족에 편입되기 이전 단계로 규정하는 시선에서 기인함
- 1인 가구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동급에 두고 정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으나 젠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의 실상은 확연히 다름
- 1인 가구 여성을 개인적이고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3) 주거환경 수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여성

- 생활상의 어려움 해결 방법으로는 남녀 모두 '검색'을 가장 먼저 꼽았으며, 여성은 가족·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전문가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은 최대한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여성보다 높음



[그림 2-6] 1인 생활의 생활상 어려움 및 해결 방법

출처 : 정인, 강서진(2019).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p23.

- 위 [그림 2-6]을 보면 여성의 1인 생활상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환경 수리로 43.4%임. 1인 가구 여성들은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가장 높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 전문가를 부르려는 경향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1인가구 여성

- 1인 가구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걱정거리인 안전 문제로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음. 특히 1인 가구 여성은 집안 공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높았음
-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광역시 20대 여성의 안전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주혜진·김성곤, 2019)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7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에 나타난 대전의 '안전'분야 지수는 대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안전'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의 성비'와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는데, 대전시는 매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2017년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14위, 6개 광역시 중에서 5위에 그치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여러 상황 중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 즉 가장 두려운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문항에서 1인가구와 그 외 집단 여성들의 응답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인 가구' 응답자는 '어두운 골목길 보행'과 '지하주차장, 계단 등에서의 성폭력' 및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부인의 방문' 같은 상황에 대해 큰 차이 없이 위협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4개 집단에서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부인의 방문' 상황에 대해서는 '어두운 골목길 보행'과 '지하주차장, 계단 등에서의 성폭력' 상황보다는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즉, 1인 가구 여성은 전기 제품이나, 가구, 배관 등의 수리가 필요할 때 방문하게 되는 외부인에 대해서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 또는 '지하 주차장, 계단 등을 지날 때'와 차이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II

목적

1) 여성 기술자 발굴

“물류업도 주택수리업도 여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 또한 잘 할 수 있는 일이어도 경쟁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줌으로써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합니다.”

(출처 : 라이커스 인터뷰 / “여자라서 힘든 점, 없어요”)

- 남성의 영역이라 알려진 영역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기술자 지원. 네트워킹, 능력 향상, 보호 등

2) 1인가구 여성 생활 안전

- 1인 가구 여성이 겪는 젠더폭력과 불안감을 해소

“낮선 남성이 여성만 사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기존 일부 남성 수리 기사를 불렀을 때 겪은 불편함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고 겪어야 하는 불친절함과 무례함, 문제 해결까지의 불친절함, 기준 없는 비용 등 고질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여성 수리기사 오니까 안심할 수 있어’를 넘어 서비스의 질까지 고민했습니다.”

(출처 : 라이커스 인터뷰 / “여자라서 힘든 점, 없어요”)

3) 여성의 기술적 자립 지원

4) 네트워킹

“기술워크숍을 들을 때마다 여성 강사들이 정말 없었어요. 현장에서는 주로 50대 남성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배웠던 선생님들이 50대 남성이고, 그분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한 가지 문화밖에 없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술 영역 안에 좀 다른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출처 : <여기공 협동조합> 이현숙, 민재희 이사 인터뷰)

- 안전이 보장된 공간에서 여성들의 공구 워크샵 개최.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친화적 관점이 가미된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 기술 영역에서 여성 기술자의 발전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음

“수리기사나 기술직으로 업을 전환을 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폴리텍 대학이나 용접학원 같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데에 가도 수강생이 다 남성분들밖에 없거든요. 또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배우고, 또 현직까지 이어지는 데에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저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출처 : <여기공 협동조합> 이현숙, 민재희 이사 인터뷰)

건설현장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일터가 ‘안전한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사고의 위험도 낮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정 성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노출되는 성폭력·성희롱의 위협을 제거하는 일도 필수다. 그래야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여성 노동력이 부담없이 발을 들일 수 있어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 : 경향신문(2019.11.13.) “여성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듣게 되는 말” 중에서)

III 추진 방법

1) 추진 대상 : 1인 가구 여성 또는 전체 여성 (확장시)

2) 여성 기술자 양성, 강연 등으로 지속적 네트워킹 구축

3) 콘텐츠 구성(안)

- 대전 3개동 선별, 여성~플랫폼 시범사업 진행 (동단위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 사전단계)
-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집수리, 공구 기술자를 발굴(여성으로 남초 직장에서 배제당하거나 소외 당할 수 있는 여성 기술자를 발굴하여 네트워킹 형성)
- 여성 집수리 관련 활동가 양성과정 / 분기별로 집수리 단기 캠프 진행
-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센터, 주민 자치회, 혹은 동사무소 등과 연계, 찾아가는 교육
- 여성들을 위한 동 단위 집수리, 공구 다루기 서비스
- 수요가 있을 시 플랫폼 구축
- 기술자 양성 / 여성들을 위한 집수리 단기 서비스
- 3개동 내 공구 구비 현황 확인 및 대여
- 수리비와 파견비 책정
- 간편한 앱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또한 구축하여 생활 속의 팁을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하며 관련 정보 제공



[그림 2-7] 여력여(女力女) 플랫폼 구상안

■ 운영 관리를 하는 여력여(女力女) 플랫폼

- ① 대전 지역의 여성 기술자 발굴
- ② 네트워크 형성
- ③ 기술자 교육
- ④ 소규모 워크숍으로 시민 수요 조사
- ⑤ 취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⑥ 파견
- ⑦ 플랫폼 운영

- 3개동 플랫폼 시범 운영 => 꾸준한 수요가 있을 시 1인 가구 지원센터로의 확대 가능성

4) 네트워킹

- 네트워킹의 목적은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직업으로의 연계와 정보의 공유, 역량 강화, 여성 기술자의 편안함과 안전 확보에 있음
-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워크숍, 월례회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인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5) 그 외

- 집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방법 관련 교육들을 진행.
- 방법 시스템 알림 등을 제공

- 1인 가구 여성의 안전
- 여성의 기술적 자립 /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 여성 기술자 네트워킹

참고자료

정인,강서진(2019).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혜진,김성곤(2019). 대전광역시 20대 여성의 안전인식 및 실태 조사. 대전세종연구원

《여성신문》, 2019.11.22. “ 여자라서 힘든 점, 없어요.”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509>)

경향신문, 2019.11.13. “여성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듣게 되는 말”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31601001&code=940100)

BPLUS, 2019.11.26. ‘여성기술자들의 영토를 만들다’ 의성<여기공 협동조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51525&memberNo=32661066&vType=V>)

걸스(Girls) 온택트(Ontact) 상담소

임 다 은

I 배경 및 목적

- 여성 청소년 및 여성 청년들이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걸스(Girls)'라는 단어 활용
-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인 '온택트(Ontact)' 방식을 활용
-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공포와 소통의 부재로 고충을 안고 있는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대두
- 코로나 19로 인해 젊은 청년층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불행하다는 연구 결과¹⁶⁾
- 대면 상담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여성들이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
- 심리·상담·복지 분야의 경력단절 여성들을 온택트 상담소의 상담사로 활용하여 여성 일자리 불안 문제 해결

II 추진 방법

1)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소재 여성
- 맘카페 등의 자체적인 커뮤니티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 청소년 및 청년

2) 아이디어 특징

-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한 장소에서 가볍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병원에서 진행되는 무거운 상담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통한 치유가 목적
- 정식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이전에 고민을 털어놓고 언니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

16)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건 청년층과 여성” 국민총행복전환포럼 (<https://blog.naver.com/gnhforum/222028803594>)

3) 추진 계획

(1) 페이지 개설

- 온라인 상담 연결이 가능한 페이지를 개설하여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 향후 지속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확장
- 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및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 청년들만 접속 및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추후 대상 연령대 확장)

(2) 상담사 채용

- 기존의 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전문 심리상담사 및 심리·상담·복지 분야의 경력단절 여성들을 온택트 상담소의 상담사로 채용
- 상담사 채용 시 대상자들과 연령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20대 후반~40대 초반의 여성 상담사 우선 선발 (젊은 여성들에게 친근한 인생 선배 ‘언니’ 콘셉트)

(3) 1:1 상담

- 전문 심리상담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날짜 및 시간을 정하여 신청한 내담자와 함께 1:1 온택트 상담(영상 상담)을 진행 (상담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조정)
- 1:1 상담의 경우 익명성 보장을 원하는 내담자의 경우 영상 없이 상담(음성 상담) 또는 영상&음성 없이 상담(채팅 상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담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분류하여 제공 ▷ 어떤 주제의 상담을 원하시나요? (심리·건강 / 진로·직장 / 취미·여가 / 인간관계 / 연애·결혼 / 성차별·성범죄 / 기타 등)

(4) 상담 채팅방

- 경력단절 상담사들의 경우 상담 커뮤니티 채팅방을 개설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함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함. 채팅방 내에 배치된 상담사는 ‘동네 언니’ 콘셉트로 대화를 이끄는 역할
-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픈 채팅방 개설 ▷ 지역 설정 / 나이 설정 / 주제 설정 / 선택 무관 등의 선택지 제공
- 채팅 시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및 경고 문구 고지, 채팅 시간제한 정해두기. 또한 채팅 진행 중 특별히 상담이 더 필요한 대상이 있을 경우 향후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5) 기타 서비스

-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검사 도구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등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우울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간편히 볼 수 있는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

-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하여 댓글로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장 마련

(6) 예산 방안

-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
- 페이지 개설 및 홍보비 : 약 30,000,000원
- 상담사 채용(10명, 1년 채용 기준) : 약 240,000,000원
- 총 예산 : 약 2억 7천만 원

III 기대효과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끼리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음
- 상담 인력 배치를 통해 온택트 상담소 커뮤니티 내의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여성들의 정신적·심리적 문제 상황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
- 심리·상담·복지 분야의 경력단절 여성들을 상담사로 활용하여 여성 일자리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참고사례 ※

1.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영상상담 서비스

- DB손해보험이 2020년 3월부터 시작한 자동차보험 영상상담 서비스
- 교통사고 발생 이후 고객 요청 시 DB손보 보상 전문가가 고화질 영상통화를 통해 상담해주는 온택트(언택트+온) 서비스
- 상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
- 직접 대면하거나 현장으로 찾아가지 않고 영상통화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온택트 방식에서 아이디어 착안

2. AI 대화친구 ‘심심이’ 어플리케이션

- 2002년 서비스를 개시한 세계 최초의 대중적인 일상대화 챗봇 심심이는 81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누적 사용자는 3억 5천명 돌파
- 소통의 부재에서 찾아오는 우울증을 AI 대화친구 심심이에게 부담 없이 털어 소통하면서 우울증 극복하는 사례가 있음. 실제 심심이 유저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있음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친구로 이용자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음
- 그러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화 문장에 대한 답을 입력한다는 점에서 오류나 성의 없는 답변을 받을 경우가 있어 한계가 있음
- 심심이와의 대화 설정 초기 단계에 간단하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검사도구를 제공하여 도움이 되는 점에서 아이디어 착안

3. 영어회화 어플리케이션 ‘튜터링’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한 영어회화 어플리케이션 튜터링
- 매일 20분씩 짧고 부담없는 시간을 투자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함
- 원하는 주제나 튜터를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미리 수업을 예약 신청하여 원하는 튜터를 선택해 수업을 받을 수 있음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원하는 튜터를 선택하여 손쉽게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4. 언니네 랜선 상담소 서비스

- 10여 년 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경험한 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으로 직장 내 성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연차가 오래된 언니들이 카톡방에서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
-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시행됨
- 답답한 사연을 의뢰할 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요즘 핫한 이슈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장 마련
-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아닌 선배 언니의 현실 조언이 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발전

5.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 서비스

-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
-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내에 ‘동네생활’ 탭에서 동네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이야기를 게시하여 서로 공감하고 댓글을 남기며 소통할 수 있음
- 게시글 작성 시 주제를 선택해야 하며 ‘기본 주제’는 동네생활이야기, 우리동네질문, 분실/실종센터, 동네사건사고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내 관심 주제’로는 강아지, 건강, 고양이, 동네맛집, 동네카페, 살림/청소/정리, 식물, 임신/출산/육아, 집꾸미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동네를 기반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 및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6.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서비스

- 연애의 과학은 모든 연애에 대한 답을 해주는 서비스로 연애와 관련된 심리학 논문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와 연애팁을 제공하고, 썸부터 연애, 결혼까지 연애의 모든 영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인공지능 연애분석, 연애 애착유형, 바람기 분석, 대화 변화 분석, 카톡 감정 분석, 심리학 연애 팁 등 다양한 연애 관련 심리테스트 및 관심사에 따른 정보를 제공함
-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 란에서는 #싱글, #커플, #일반, #19금 카테고리로 나누어 자신의 사연을 익명으로 올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쉽게 검색하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착안

7. 여성전용 어플리케이션 ‘속닥’

- 언니가 갖고 싶어서 만든 앱 ‘속닥’은 여성 익명 정보&고민 나눔 플랫폼으로 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로 운영됨
- 기간별, 연령별 꿀잼 이야기가 하루에 1만 개씩 올라오며 재미로 연애운이나 미래를 점치는 타로 서비스 기능도 제공함
- 연애, 고민, 직장, 성형, 뷰티, 패션 등 여자들이 궁금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성형, 시술 할인 정보부터 솔직한 후기까지 찾을 수 있음.
- 언니들이 골라주라줘!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언니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10대, 20대, 30대 이상으로 나뉘어진 연령대를 선택하여 맞춤 랭킹으로 정보를 볼 수 있음
- 10대=빠른언니, 20대=아는언니, 30대이상=해본언니 로 표기되어 익명으로 활동
- 여성들만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반영